

1인 1사역,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지체

2013년 사역박람회

작년에 이어 4주에 걸친 박람회

2013년 사역박람회가 11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주에 걸쳐서 주님의교회 김마리아관 로비에서 열리고 있다. 작년에 이어 “1인 1사역 갖기”가 주제이다. “2011년까지는 모든 사역팀을 하루에 소개하는 까닭에 일회성 이벤트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점을 보완하고, 성도 여러분과 각 사역팀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상담할 수 있도록 8주에 걸쳐서 열었지요. 올해에는 일정을 다시 조정해서 4주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사역박람회가 열린 로비 한쪽 운영본부에서 만난 유기영 목사의 말이다.

11월 3일과 10일은 섬김위원회 봉사분과와 복지분과, 11월 17일은 선교분과와 해외선교분과, 11월 24일은 목양위원회의 예배분과, 문화예술분과, 미디어분과, 양육분과, 소그룹분과의 순서로 진행된다. 교육부서는 이번 사역박람회에 참석하지 않고 따로 기회를 갖기로 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체일뿐더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초석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라는 말씀처럼, “사역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발견하게 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라고 은사사역팀 이승일 안수집사는 말한다. 은사사역팀에서는 성도들의 달란트에 맞출 뿐 아니라, 교회 사역의 균형과 다양한 사역 경



2013년 주님의교회 사역박람회가 11월 3일부터 24일까지 열리고 있다. 전 성도가 1인 1사역을 갖게 되면, 1인 2사역 이상의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사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일 터이다. 함글함글 사진

험을 쌓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왔다. 작년에는 ‘은사진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성도의 특성과 관심에 따른 사역 분야를 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2013년에는 사역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한 성도가 되도록 2사역까지만 감당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올해 사역 박람회에서 바뀐 것들

관심을 깊이 가진 분이라면, 작년과 달라진 점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1인 1사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사역 신청을 해야 한다. 여러 사역 팀에는 이름이 올려져 있을 뿐 실제 사역에

참여하지는 않거나, 여러 팀에 등록이 되어 있어 혼란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 기회에 모든 사역팀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분들로 투명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기존 사역자들도 신청을 하도록 했다.

일손이 부족한 사역팀 배려

특히, 섬김위원회의 여러 분과에서 사역자 부족의 현상이 심한 까닭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주방, 커피봉사, 주차안내, 환경 미화 등 봉사분과의 여러 팀과, 호스피스 장애인 사역 등 복지분과에서 특히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사역박람회의 일정도 섬김위원회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3주 동안 시

행되고, 목양위원회의 여러 팀은 마지막 날 하루에 열게 된다. 또한 은사사역팀에서 운영본부를 마련하여 신청자와 직접 상담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부서에 집중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추천할 예정이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총 등록교인 약 7,000명 가운데, 1,200명 정도만 사역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면 한 성도가 여러 사역을 맡아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사역은 신앙에 깊이를 더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가족이 됨을 느끼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이승일 안수집사의 말이다.

함글함글

 **쉽고 재미있는 기독교의 역사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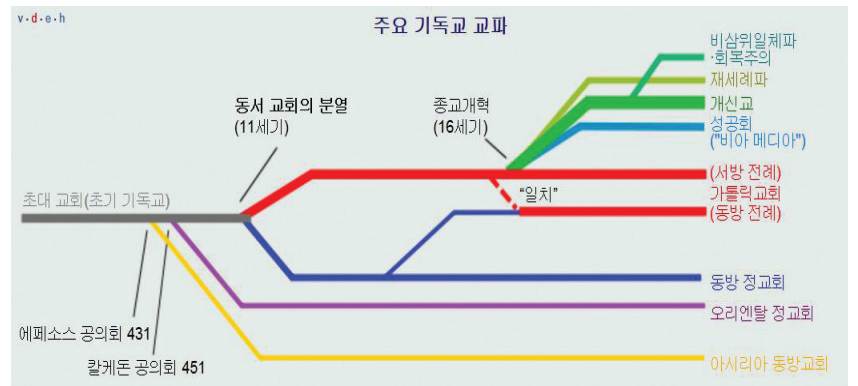
동서 교회 대분열의 직접적인 배경과 분열 이후

필리오케 논쟁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것은 동서방 교회가 각각 불가리아 지방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동서방의 선교사들이 각각 다른 신학적 표현으로 성령을 표현함으로써, 불가리아의 통치자 보리스(Boris)가 처음에는 서방 교회의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꿔 비잔틴 동방 교회의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인해, 필리오케 논쟁을 둘러싼 동서방 교회의 대립이 더 심화되었다. 동방교회 최고 신학자였던 포토우스(Photius)는 공식적으로 서방 교회의 필리오케를 공격하였다가 주교의 자리에서 해직당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다(867년).

동서교회의 대분열이 일어난 직접적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럽 북방의 야만족이었던 노르만족(Normans)의 남침으로 야기된 서방 교회의 위기의식과 샤를마뉴의 성령론(Filioque)에 대한 동방교회의 반대 등의 신학적 견해차이가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동서방 교회의 분열조짐은 서방교회의 지도자 교황 레오 9세의 독단적인 교권행사와 동방교회의 지도자였던 콘스탄티노폴의 대주교 마이클 케룰라리오스(Michael Kerularios, 1043~1058)의 배타적인 성격차이로 인한 감정충돌로 발전하였다. 필리오케와 성물송배에 대한 상이한 이해를 가지고 있던 동서방 교회는, 1025년 케룰라리오스가 콘스탄티노

폴에 있는 서방교회에게 헬라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한다. 물론 케룰라리오스의 이러한 요구는 이탈리아에 있던 동방교회들에게 라틴어를 사용할 것을 강요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콘스탄티노폴의 서방교회들이 동방교회의 요구를 거절하자 케룰라리오스는 서방교회들의 문을 닫아 버리는 강경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서방교회가 성례전에서 사용하던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동방교회의 성례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054년 교황 레오 9세는 특사자격으로 추기경 흄버트(Cardinal Humbert)를 콘스탄티노폴로 파견했다. 그러나 동방교회의 대표였던 대주교 케룰라리오스는 흄버트 추기경과의 면담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흄버트 추기경은 하기아 소피아(Hagia Sophia) 성당의 제단에 교황의 칙서를 남겨놓고 콘스탄티노폴을 떠나 버린다. 필리오케 논쟁이 다시 등장하면서 흄버트 추기경은 필리오케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동방교회를 이단이라고 발표했다. 서방교회가 콘스탄티노폴의 대주교를 파문시킨 것이다. 이에 반발하던 케룰라리오스 대주교는 흄버트가 남기고 간 교황칙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흄버트를 파문에 처한다. 이 사건을 역사가들은 동서교회의 대분열이라고 부른다. 동서교회의 분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054년의 대분열 이후, 서방교회는



주요 기독교 교파의 변천과 분열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엄밀한 논리를 강조하는 철학적 신학이 발전한 반면, 동방교회에서는 예배와 성례전을 강조하는 경험적이며 신비적인 신학이 발전하였다. 삼위일체를 비롯한 동서방 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각기 강조하는 부분이 달랐다. 서방교회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대신한 '희생의 속죄물'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동방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승리자'로 강조한다. 로마 교황청의 교권을 강조하는 서방교회의 전통과는 달리, 동방교회는 사제들의 평등한 관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차이점이다. 사제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동방교회의 전통과는 달리, 서방교회는 지금도 사제들의 독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서방 교회가 대분열의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된 것은 제4차 십자군 운동으로 인한 동서방교회의 충돌 때문이었다. 서방교회의 십자군들에 콘스탄티노폴의 동방교회를 약탈하고 살육

하는 사건이 발생하여(1204년), 동서방 교회는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어떤 학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동서교회의 대분열은 1204년이라고 주장한다. 대분열 이후 동서교회는 1962년에 시작된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0.~1965.12)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톨릭교회와 동방정교회 간의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1965년에는 교황 바오로 6세와 대주교 아테나고라스(Athenagoras)가 만나 1054년의 상호파문을 철회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79년에는 두 교회 간의 신학적 화해를 모색하기 위한 특별신학위원회가 공동 구성되기도 하였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관련하여 우리가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1517년 이후 분열되었던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와 화해분위기가 조성되어 한국의 개신교회 신학자들과 가톨릭 신학자들의 공동작업으로 탄생하게 된 성경이 바로 '공동번역' 성경이다.

이강찬 목사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51**

歷代 上, 下

(역대 상, 하 Books of Chronicles)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역대 하 13:5)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바빌론 포로기까지 神政(신정)의 역사를 쓴 책. 아담에서 다윗까지의 계보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까지 남왕국 유대의 역사 등 3부로 구성되었다. 성전과 예배. 성전 건축 준비. 성전의 구조를 자세히 언급하였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歷(지낼 력) : “세어보다. 헤아리

다”의 뜻이 있는 厯(셀 력)에 “발걸음. 발자취”를 뜻하는 止(그칠 지)를 결합시켜 <지난날을 헤아리고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남은 세월을 지낸다> 라는 문자를 만들었다.

★代(대신할 대) : 人(사람 인)의 변형체 亼(사람 인 번)과 “무기. 도구”를 의미하는 弋(주살 익)이 결합되어 <사람이 할 일을 무기나 도구로 대신한다>는 의미가 되었다.

★上(윗 상) : 추상적 사실을 가리키는 指事文字(지사문자)이다. 기준선 보다 위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위쪽에 점으로 표시하였다.

★下(아래 하) : 기준선 보다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래쪽에 점으로 표시하였다.

함줄함줄

☞ 교계소식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세계교회협의회 (WCC) 제10차 총회

세계 기독교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가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전 세계 345개 회원교회 중 90% 이상이 참석하고, 761명의 총대를 비롯한 일반 참가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감격적인 개회 예배로 그 서막을 열었다.



개회 예배에서 아르메니안정교회 케어킨 2세 총대주교는 “우리가 정의와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희망을 잃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다가서며, 함께 동행해주고, 그들의 짐을 덜어 주어야 한다” 고 전하면서, 참된 평화와 참된 정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자” 고 권면했다.

기독교포 사진

개회 예배에 4,000여 명 참석

개회예배에는 한국 내 WCC 4개 회원 교단과 교회 연합기구 대표들, 여

성, 청년 연합기구 대표 등 4,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님의교회가 속한 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에서도

총회장인 김동엽 목사를 비롯한 임원진과 증경총회장들, 교단 주요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부산 총회의 이모 저모

한국 교회는 부산 총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열정적인 신앙을 세계 교회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부산 총회에서는 ‘통성기도’와 ‘새벽기도’가 공식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수요일 예배도 부산 인근 여러 도시에서 들려졌다. 또한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열리는 총회인 만큼, 8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분단의 현장인 휴전선을 방문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회의

총회 직전에는 교회내 약자들의 입장을 위한 사전대회가 벡스코에서 열렸다. 여성, 청년, 장애인, 원주민 등 4개 영역으로 진행되어,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상황과 이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한편, WCC 반대자들과의 마찰도 없지 않아, 사전등록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관람과 참여가 제한되기도 했다. WCC 반대 집회에는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결의한 주요 단체들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함줄함줄

예수친구사역 제1차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와서

10월 18일(금)~10월19일(토) 양일간 예수친구사역 과정 중에 있는 26명과 한국선교역사기념관, 해미읍성 성지, 애양원,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 김제금산교회 등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첫 방문지였던 한국선교역사기념관에서 우리는 창조, 타락, 구원의 과정을 말씀과 실제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재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떠한 희생과 순교를 통하여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기꺼이 바쳤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미읍성, 애양원 등을 방문하면서 국내 곳곳에 서려 있는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과 믿음의 열개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



하지 않고,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음을 깨닫고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100여년의 세월동안 예배의 처소로 자리하고 있는 “ㄱ”자 형태의 김제 금산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앞선 시대의 선조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시대를 뛰어넘는 신앙의 교제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의 목사님의 이야기는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본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더욱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억압할수록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두고 살았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은 더욱더 명확해지고 확고해졌음을 보며, 현실의 어려움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타협하는 유약한 저의 신앙을 재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義)를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일가에 대해 진중한 질문을 매일 던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해봅니다. 조광민 목사

“예수친구사역”의 뜻

예수친구사역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제자훈련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요 15:15)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특별한 권위를 누릴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친구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기보다 피조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반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고 익히며, 신앙과 삶의 분리에서 조화와 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역입니다.

조광민 목사

주님의교회, 가을 나들이

늘푸른대학

10월 22일 늘푸른대학 학생들과 스텝들은 연천 허브 빌리지를 찾아 가을 나들이를 가졌다. 5대 버스에 나누어 180여명의 많은 식구들이 허브빌리지 넓은 야외 공원에서 게임을 하고 허브향 향기 속에서 함께 노래도 부르며 사진도 찍으며 귀한 시간을 가졌다. 함께한 어르신들은 지나간 시간의 흔적과 세월의 흔적들을 잊고 동심으로 다시 돌아간 시간 속에서 한 잎 한 잎 가을 낙엽 떨어지는 소리와 추억 속으로 행복한 가을 한나절을 추억하고 기억으로 남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함줄함줄**

주방부

10월 25일 금요일 이른 아침 40여명이 넘는 주방봉사자들과 주방 서포터들이 충주호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봉사를 하며 나누지 못했던 시

간들을 함께한 모두는 출렁이는 유람선의 갑판위에서 맞이하는 충주호의 바람과 가을 단풍의 바람을 흠뻑 느끼고 왔다. 봉사 현장을 잠시 떠나 가진 공동체와 함께 하는 짧은 여행 속에서 봉사 현장에서 못 다한 말들 나누며 쉽지 않은 주방사역을 위한 재충전의 귀한 시간을 가졌다. **함줄함줄**

한국무용부

한국무용부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인왕산 둘레길로 지난 10월 28일 가을 소풍을 부원 9명이 배숙자 선생님과 함께 다녀왔다. 둘레길 산책 중 만난 멋진 경치와 무대, 무대 뒤를 두른 소나무의 자태에 춤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국무용을 배운 사람이 아닐 것이다. 시작은 나무 벤치를 장구 삼은 김영아 권사님의 반주로 시작됐다. 처음엔 서로 바라보며 어색하게 살짝 웃었지

만, 이내 어깨와 팔은 장구 가락을 따라 부드러운 선을 만들었고, 앞뒤로 오가는 발은 산책 나온 사람들을 관객으로 변하게 하는 군무가 되었다. 10여 분의 짧은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관객과 우리, 모두가 가을의 추억을 쌓은 짧았던 이 순간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느껴졌다. 가을을 즐기러 나와서도 하나님의 솜씨와 손길을 몸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공연을 마치고, 윤동주 시인 묘비공원을 지나 목적지인 백사실 계곡으로 가는 동안, 함께하지 못한 부원의 빈자리를 아쉬워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와 함께하는 즐거움보다 큰 행복은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함께 춤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관객과 함께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하다. 하나님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걷는 걸음에 있다. **곽병남 집사**

학원선교부

학원선교부에서는 10월 29일 아시아 공원에서 가을나들이를 하였다. 아침에 살짝 내린 가을비로 맑은 가을정취 속에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1년 동안 혹 몇 년 동안씩 정신(眞信)의 딸들과 믿음 속에서 기도와 사랑을 나눈 모든 시간들에 감사를 드렸다. 박혜성 목사는 말씀을 통해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를 드리며 정신(眞信) 학원 여중·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 어머니로 믿음을 준 믿음의 어머니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다.”고 감사를 드렸다. **함줄함줄**

에바다 싯딤나무

지난 11월 2일은 장애교우님들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날이었다. 대통령 별장 청남대로 야외예배를 다녀왔기 때문이다. 토요일 일일봉사 사역 팀은 팀장인 김익훈 안수집사님의 편성요청에 따라 새벽시간부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파곤한

어묵 국물과 함께 준비한 김밥으로 간단한 아침식사를 마치고 장애인 사역담당 유성훈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후 두 대의 특장버스에 오른 시간이 8시 30분이었다.

천안휴게소에 도착할 무렵 빗방울이 제법 굵어졌으나 곳은 날씨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감사히 받는 마음으로 12시경 충북 청원 청남대에 도착 입경절차를 밟았다. 현지 대통령 기념관에서 구입한 비닐우의를 입고 1시간 30분간 자유 관람시간을 가졌다. 정해진 동선을 따라 차분하게 대통령 기념관의 전시물과 휘호, 영상을 관람하면서 의외로 검소한 생활용품과 각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기념품의 소박함에 감명을 받았다. 별장 본관에는 휠체어를 위한 코스와 승강기까지 완비되어 편리하게 관람할 수가 있었고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2층 건물의 본관은 연면적이 800평으로 집무실, 접견실, 회의실, 거실, 식당, 몇 개의 침실 등이 영부인 및 가족공간을 구분하여 잘 배치되어 부러움을 샀다. 시간의 제한과 우천관계로 연못과 골프, 승마, 조깅, 수상보트장을 다 돌아보지 못하고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어 김익훈 팀장님이 마련한 상품으로 성경퀴즈대회를 가졌는데 장애교우님들의 해박한 성경지식에 모두 감탄하였으며 특히 수화에 의존하는 에바다 팀의 순발력은 일품이었다.

돌아오는 여정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 박수치는 시간을 가졌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소속교회에 감사를, 담임목사님께 은혜를, 세심하게 안전을 챙겨준 운전기사님께 감사를, 물질로 시간으로 수고로 봉사해주신 사역 팀에게 감사를, 평화를 보장해준 조국에 감사를, 무엇보다도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며 스스로 행복을 창출한 동료 교우님들과 대견한 자신을 격려하는 가운데 18시 30분 주님의 교회에 무사히 도착하여 뜨거운 포옹으로 작별하였다. **노대홍 안수집사**



주님 주신 가을풍경을 배경으로, 위로부터 늘푸른대학, 주방부, 한국무용부, 학원선교부, 에바다 싯딤나무

하쿠나 마타타 비전트리 다니엘들이여

11월은 고3 수험생들로 인해서 더욱 추워지는 계절인 것 같다. 고3과 그 가족들 그리고 비전트리(고등부)도 덩달아 초긴장상태에 접어든다. 그렇게 긴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수능을 마라톤 코스로 비유하기 때문인 것 같다. 아마도 마라톤은 모든 운동 경기 중에 가장 힘든 경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단지 마라톤 경주결과는 1, 2, 3등만 있지만 수능은 각 등급별로 구간 인원수가 차이가 난다는 점이 차이가 날뿐이다.

고3이 되면 학기 초에 잠깐 나왔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꽤 있다. 그중에 상당수는 교회 예배 볼 시간에 공부나 더하라는 부모님의 배려(?)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어쩌면 배려란 단어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곳 같다. 그렇다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우리 반 스군은 좀 다른 것 같다. 덩치는 작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한 스군은 지금까지 한번도 결석하지 않았다. 고3치고 대단한 일이다. 3월 말쯤이었을까? 다른 친구들은 모두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스군만 없었다. “애, 너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친구들에게 좀 쪽팔리지 않냐?” 하고 학생 버전으로 물었다. 그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선생님, 공부

하기도 바쁜데 그게 왜 필요하지요?” 묻는 내 입장을 묘하게 어색하게 만든 그 질문 속에 스군의 결의에 찬 의지가 담겨져 보였다. 토요일 밤늦도록 공부하고 남들 다자는 늦잠을 거른 채 달려오는 스군의 모습에서 다니엘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기는 의사가 되면 아프리카에 가서 꼭 봉사하고 싶다는 이야기 속에서 성령 감화받은 자와 같은 큰 뜻을 엿볼 수 있었다. “으음 그렇구나. 그리고 보너는 참 대단한 친구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대답을 할까?” 매일 아침 고1.2보다 빨리 나와서 기도하는 스군, 나도 저 나이에 생각지 못한 생각을 주신 하나님은 해에 놀라울 뿐이다.

많은 학생들이 수험장에서 지나친 긴장으로 인해 실수를 한 끝에 꼭 2~3문제를 틀리곤 한다. 2~3문제는 1등급이 2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는,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천국과 지옥과 같은 점수 차이이다. 이 지나친 긴장은 어디서 올까. 나는 그것을 대체로 시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마음과 심리적 긴장이 결합되어서 생기는 불상사라고 본다. 이는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함에서 온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에게는 시험장에서도 자신을 응원하는 하나님을



11월 3일 1부 예배에서 수능시험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의지하기 때문에 불확신과 흔들림이 비교적 덜할 것이다. 나는 스군에게 늘 기도 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고(시험장에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의지하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쿠나 마타타 파이팅을 외친다. 그의 심령 속으로 긍정의 바이러스가 퍼지길 빌면서...

나는 스군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로 미루어 보건대 정직한 몰입,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른 신앙자세로 인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확신한다.

몇 달 후면 우리 비전트리에서는 또 다시 수많은 고3생들이 새롭게 수능의 마라톤 출발선상에 설 것이다. 그리고 또 1~2달이 못되어 초조한 학부

모들은 자녀들을 배려한답시고 교회 대신 학원을 선택할 것이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학생의 5시간과 뜻을 정하지 않고 집중력을 잃은 10시간 공부 효율, 어느 쪽이 승리 할 것인지 그 결과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세상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평생을 좌우한다고 본다. 어쩌면 신앙 자체는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며 나의 달려 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마라톤 경기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부형은 앞만 보고 뛰라 하고 믿음의 부모는 멀리 보고 뛰라고 한다면 분명 수능은 멀리 보고 뛰어야 하는 마라톤경주다.

신영백 집사 / 고등부 교사

말씀따라 가로세로 _ 시편 편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 ○ 하는도다 (시1:1-2)

2.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 ○ 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 ○ 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시20:5-8)

3. 여호와와 나의 ○ ○ 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시23:1-3)

4. 그의 노엽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 ○ 이 오리로다 (시30:5)

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 ○ 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42:5)

6.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 ○ 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 ○ 을 내게서 거두

지 마소서 주의 ○ ○ 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시51:10-12)

7.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 ○ ○ ○ 을 얻게 하소서 (시90:8-12)

8.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네 ○ ○ 을 지키시리로다 (시121:5-7)

부르심의 길에 서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리



‘부르심’ 제게는 떨리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바울도 모두 ‘부르심’으로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위치라고 말했으며, 종교개혁자 루터는 직업이 아닌 삶의 위치라고 말했습니다. ‘부르심’은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 내가 있어야 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르심’을 알고 그 자리를 찾게 된 것은 전역한 후였습니다. 학교의 문제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으로 말미암아 평소에는 가지도 않던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금식하며 기도하게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던 저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임하셨고,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교회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셨고, 저는 기쁘게 그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나름대로 교회에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인답게 삶을 산다고 생각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대학 졸업 후 다시금 자리를 떠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유학, 취업 등 여러 길을 모색하고 준비하였지만, 어느 것 하나 길이 열리지 못하였고 저는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시던 한 가지 기도제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너를 사역자 삼으려고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역자의 자리에 가기까지 5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역자는 더 희생해야 하고, 삶의 많은 것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 싫어서 그 자리를 거부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세상의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나의 ‘뜻’으로 인해 물고기 배 속에 있던 욕처럼 밤낮으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사랑의 하나님은 매일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를 주셨고, 저의 기도제목은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교회 전도사의 자리에 있지만, 언제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두려워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원고를 부탁받고 이전의 부르심을 기억했을 때 당시의 고민과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기에 방황하지 않고 ‘부르심’의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도 은혜만이 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를 찾고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에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고전 7:17)

이준엽 전도사

교회 단신

진중 세례식



10월26일 토요일 장로회, 청년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부모 등이 육군 3사단을 방문했다. 멸공OP에 도착하여 북녘 땅을 바라보며 분단의 현실을 느끼고, 끊어진 철길 등 안보견학을 마친 후, 사병 식당에서 훈련병과 같은 식사를 체험하고 신병 교육대 십자군 교회에 도착하여 세례식에 임했다. 청년부 찬양단의 신나는 율동과 찬양은 젊은 훈련병들이 함께함으로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또한 세례 순서에 의해 장로회 특송으로 “십자가군병들이”를 부를 때, 모든 구성원이 목소리를 합쳐 찬양하는 감동이 세례식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이우풍** 집사/군경선교팀장

수능 기도회



11월 7일 목요일 수능시험일 오전 8시 30분부터 2014년 수험생을 위한 수능 기도회가 서울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학부모와 중보기도자가 참석하여 수능시간표에 따라 기도회로 드려졌다. 여러 해 동안 준비해온 시험에 실수하지 않고 시험을 보는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고 혹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지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함께한 모두는 함께 기도하여 주는 마음과 할 수 있다는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다. 기도회 중에 부목사님들이 참여하여 용기의 말씀들을 전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함줄함줄**

‘비움’은 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마 5:6)

사람은 생명체인 까닭에 음식물을 먹고 마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도 먹고 마십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까닭은 이성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놓은 사람을 흔히 동물 같다고들 합니다.

무엇에 굶주리고 무엇에 목말라하는가에 따라 동물이나, 사람이냐가 구분 됩니다. 사람과 사회 역시 무엇에 굶주리고 무엇에 목말라하느냐에 따라 그의 역사와 미래가 달라집니다. 맹목적인 권력에 굶주린 히틀러와 같은 사람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재에 항거하고 자유와 민주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다운 삶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마 23:26) 자기의 ‘의’를 비우고, 늘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참된 의미의 배부름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사역일정

11. 3 ~ 24 (주일) 사역박람회	11. 29 ~ 30 (금~토) 예천사 전체 세미나
11. 22 ~ 23 (목~금) 정책당회	12. 1 (주일) 대림절 첫주일
11. 29 (금) 양육클래스 종강	12. 6 (금) 금요기도회